

【인 사 말】  
【ごあいさつ】

윤 기  
尹 基

한국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韓国 社会福祉法人 共生福祉財団 名誉会長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日本 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理事長

## ごあいさつ



尹 基

韓国 社会福祉法人 共生福祉財団 名誉会長

日本 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理事長

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こんにちは）

共生福祉財団の名誉会長の尹基です。まず第9回国際社会福祉セミナーに参加して下さった韓国と日本のみなさま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子を産んで育てるまでは良かったものの、年をとると荷物になってしまう。人生90年という時代を迎え、だれもが自分自身の老後に不安を感じ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不安を解消するために日本政府は、高齢者の自立支援という理念のもと、いつでも、どこでも、誰もが高齢者福祉サービスを選択できる介護保険法を1997年に制定し、2000年4月から実施してきました。お年寄りの世話することを家庭の責任から社会の責任へと変える介護保険法の導入は、福祉革命ともいえる大変革でした。保守的な政治家と企業家、地方自治団体長らの反対の中、介護保険法を実現させたことは、厚生労働省の官僚と高齢社会をよくする女性の会の役割が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

「介護保険法が、高齢者福祉サービスにおいてどのような貢献をしたのか」

「その問題点と改善点は何か」

「家庭と女性の役割は、どう変わったのか」

高齢社会の問題は単純な福祉だけでなく、保険、保育、介護、教育、労働、文化、環境、都市の再生産などすべての分野にわたり、社会システム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国家的な課題となっています。何故ならば、私たちの社会は長い歳月を経て、人生50年の時代を基準に作られてきたからです。韓国でも、高齢社会基本法を準備しているところ

ろです。

私ども共生福祉財団は 1928 年、尹致浩伝道師がテントを張り、7 名の浮浪児と生活をともにしたことがその始まりで、日本人の音楽教師、尹鶴子（田内千鶴子）がボランティアで参加し、愛の共同体を作りました。その歩みは、まさにその時代のうつし絵でもあります。

1920 年代の孤児浮浪者の救済事業にはじまり、1930 年代は貧民学校運営を、そして 1940 年代帰還同胞救護事業、1950 年代戦争孤児救護事業、1960 年代戦争未亡人のための無料託児事業に続き、1970 年代には青少年のための職業訓練事業を、1980 年代は障害者、浮浪者の福祉事業を、1990 年代になり、韓国の社会福祉士と福祉関係者に日本の福祉現場を正しく理解していただく国際社会福祉研修を 43 回にわたり 614 名に実施してきました。そして 2000 年代は、韓国自願（ボランティア）福祉文化開発事業を実施してまいりました。

一方、日本では、夢、自立、文化というキーワードで在日韓国人高齢者福祉事業 - 故郷の家を運営しながら、済州道で開催した国際社会福祉セミナーも今年で第 9 回目を迎えました。また韓国上映許可第一号となった映画「愛の黙示録」を製作し、韓国の日本大衆文化開放のきっかけにも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韓国の良いところを日本に伝え、日本の良いところを韓国に伝えながら明るい社会を作るのに、みなさんとともに研究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セミナーを通して韓日両国の長期療養比較が、韓国と日本はもちろんアジアの良いモデルとなり、アジアの平和と友好増進に寄与する契機となれば幸いです。

もう一度、韓日・日韓両国から参加していただいたみなさまと貴重な発表をしてくださる講師の先生方、そして準備して下さったみなさま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

## 인사말



윤 기

한국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생복지재단의 명예회장 윤기입니다. 우선 제9회 국제사회복지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한국과 일본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 짐이되고 맙니다. 인생 90 년이라는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가 자신의 노후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고령자의 자립지원이라는 이념아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가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호보험법을 1997 년에 제정하여 2000 년 4 월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어르신을 보살피는 일을 가정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바꾸는 개호보험법의 도입은 복지혁명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보수정치인과 기업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가운데 개호보험법을 실현시킨 것은 후생노동성관료와 고령사회를 좋게하는 여성들의 모임의 역할이 컸습니다.

‘개호보험법이 고령자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어떻게 공헌했는가,  
그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가정과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변했는가’ 는 한국에 있어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문제는 단순한 복지만이 아니라 보건, 보육, 개호, 교육, 노동, 문화, 환경, 도시 재생산 등 모든분야에 걸쳐 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사회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생 50 년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령사회 기본법

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윤치호 전도사가 천막을 치고 7명의 부랑아동과 생활을 함께한 것이 그 시작이며, 일본인 음악교사 윤학자(타우치 치즈코)가 불런티어로 참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고아부랑인 구제사업을 시작으로 1930년대는 빈민학교 운영을 그리고 1940년대는 귀환동포 구호사업, 1950년대 전쟁고아 구호사업, 1960년대 전쟁미망인을 위한 무료탁아사업에 이어 1970년대에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을, 1980년대는 장애인, 부랑인 복지사업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사회복지사와 복지관계자들에게 일본의 복지현장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국제사회복지 연수를 43회에 걸쳐 614명에게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한국 자원복지 문화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꿈, 자립, 문화리는 키워드로 제일한국인 고령자복지사업-고향의 집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에서 개최한 국제사회복지 세미나도 올해로 제9회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상영제 1호가 된 영화 '사랑의 묵시록'를 제작하여 한국의 일본대중문화개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좋은 점은 일본에 알리고, 일본의 좋은 점은 한국에 알리면서 밝은세상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한일양국의 장기요양 비교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의 좋은 모델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와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한일 양국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귀한 발표를 해주실 강사님, 그리고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